

통합특별시 준비 본궤도... 조직·시스템 구체화

정책협의체 2차 회의...국비 확보 공동 대응 행안부 참여...상징물 제작·행정체계 정비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 체계 구축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 조직 구성과 행정시스템 정비, 국비 확보 전략까지 구체화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31일 공동혁신

도시에서 행정통합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조직·행정시스템 구축과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3월 24일 발족한 공식 협의기구로, 양 시·도 행정부지사와 부

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통합 관련 핵심 과제 설정과 재정 조정, 정부 대응을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개편지원단이 참여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을 정부와 공동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합동 워크숍 논의의 내

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건의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시·도 정책을 비교·분석해 통합 이후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통합특별시 정체성 구축 작업도 병행된다. 양 시·도는 통합 초기 시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 상징물 제작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출범 일정과 조직 구성, 법적 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

한 논의도 진행됐다. 행정통합이 조직과 재정,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인 만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향후 단계별 일정 관리와 실행 전략을 통해 통합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행정 조정과 정부 협의를 병행하면서 실제 행정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서두를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국비

확보를 포함한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시민 중심의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1차 공천 결과 발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의원 1개 선거구와 기초의원 10개 선거구의 공천 심사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공천은 ‘3강(강한 비전·역량·의지)과 3신(새 인물·신뢰·신념)’ 원칙에 따라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 정치인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후보자 평가는 도덕성과 정체성, 직무 수행능력, 전문성, 당 기여도, 당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 서류심사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광역의원(복구 제5선거구)에는 30년 이상 광주YMCA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친 선동주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기초의원 단수 추천 후보는 △동구 가산선거구 조성오 △동구 나산선거구 박종균 △서구 가산선거구 노윤섭 △남구 다산선거구 박용화 △북구 바산선거구 정형기 △광산구 가산선거구 윤성미 △광산구 나산선거구 강대호 △광산구 마산선거구 박철웅 후보가 선정됐다.

서구 라산선거구는 경선지역으로 확정됐다. 4선의 의정 경험을 갖춘 김옥수 후보와 주민자치·봉사활동 기반의 김훈중 후보가 경쟁을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혁신당 시당 공관위는 이달 중 2차 공모를 통해 추가 인재를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당은 ‘장벽 제로’ 원칙을 적용해 45세 이하 공천 심사비 면제와 29세 이하 기탁금 전액 지원을 실시하고, 34세와 45세까지는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울러 여성·청년 후보에게는 최대 30%,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경선 시 1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현규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1일)을 비롯해 김주호 호남에서 열린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광주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시·의료기기’-전남 ‘백신·신약’ 결합

행정통합 이어 ‘바이오헬스 침복단지’ 동맹

호남권 침복단지 컨퍼런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 오후 2시 광주 호남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광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최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광주와 전남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역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전남바이오진흥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산·학·연·병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바이오 역량을 결집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호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중앙 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선경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공동추진위원장은 “호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및 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은 연구 성과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규제와 자금의 장벽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단순한 물리적 집적을 넘어 각 거점을 촘촘히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구축해 호남권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AI)-바이오 융합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는 △정대현 바이오에프디앤씨 대표의 ‘바이오에프디앤씨 성장 전략과 기업 발전 스토리’ △오일웅 식품의약

품안전처 과장의 ‘오노노이드 기반 NAMs 적용 현황과 동물대체시험법 규제 동향’ △이관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의 ‘투자의 이해와 전략’ △김형석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의 ‘K-HIOPe’ 여는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시대: 병원 중심 광역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전략’ 등이 진행됐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또 자유 네트워킹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기업, 대학, 병원 관계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전문가 자문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정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정훈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할 터”

광주-인천 노선 취항 무안공항 공백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단일화한 경기 정 전 후보와 함께 군공항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무안공항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년간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의 문턱을 넘어 실질적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군공항 이전이 단순 시설 이전이 아닌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남 서남권 항공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현재 1년 넘게 사실상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대안과 향후 발전 방향,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그는 “무안공항 정상화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연



결하는 국내선 취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KTX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공항을 신남방 물류 허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며 “군공항 이전 부지는 로봇·AI·첨단 모빌리티 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 캠퍼스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으로의 활용 외에도 뉴욕 센트럴파크 규모의 국가정원 조성, 컨벤션 센터 및 공연장이 결합된 복합 문화·관광 공간 조성으로 ‘광주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내놨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6차 협의 과정에서 약속된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광주시의 계획 또한 큰 틀에서 계승·발전시켜 보다 완성도 높은 미래 비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중 전남도당, 4개 분야 비례대표 공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청년 후보는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1일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공관위) 회의를 통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겨룰 앞두고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청년 후보는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다.

비례공관위는 컷오프 없이 당원과 국민 참여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면접을 거쳐 11일 부처직 심사 결과와 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김한중 예비후보 “장성~광주 트램 구축” 출퇴근 혼잡 해소·생활권 통합 겨냥

김한중 장성군수 예비후보(사진)가 광주 침전3지구와 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트램 구축 공약을 내놓으며 장성~광주 간 생활권 통합 구상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일 광주 침전3지구부터 장성읍과 장성역을 잇는 총연장 13km 규모의 광역 교통망(트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장성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교통축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 40%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노선은 침전3지구를 출발해 국도1호선 인근과 남면 소재지를 거쳐 장성역까지 이어진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업을 정부의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정책과 전남·광주



통합 교통망 구축 흐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체계 개선과 단일 생활권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정시성 저하 등 기존 도로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용 선로 기반 운행으로 정시성과 수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역 트램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차영수, 후원회장에 김용 전 부원장 영입 이재명 정부·중앙당 연결고리 부각

민선 9기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차영수 예비후보(사진)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차영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김 전 부원장이 차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체제에서 활동한 인물로,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 측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차 후보 측은 이번 영입을 두고 중앙정치권과의 정책 연결성과 예산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차 후보가 내세운 강진 예산 1조원 시대 구상과 대형 국비사



업 추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후원회장 수락 메시지를 통해 “차영수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사회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치와 강진에서 실현할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밝혔다. 차 후보 측은 전했다.

차 후보도 “민주당 중앙정치권에서 정책을 다뤄온 김용 전 부원장의 합류로 강진 발전 구상에 추진력을 더하게 된다”며 “강진을 스마트 농어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근철 “영광 바꾼다”... 실용주의 출사표 소득·돌봄·청년·문화 ‘4대 르네상스’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선거에 나선 이근철 예비후보(사진)가 개소식과 함께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장 중심 정책과 ‘공익형 실용주의 행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긍정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근철 예비후보는 1일 영광을 신하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및 출마선언식을 열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위로 영광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원로,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선거사무소 내부가 가득 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영광을 새롭게, 군민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 소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현재 영광군의 상황을 ‘풍요 속의 빈곤’으로 규정했다. 출산을 전국 1위라는 지표와 달리 의료·복지 인프라는 부족하고, 행정은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진단이다.

이 후보는 “정책의 디테일은 현장에 있다”며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